

경주시의회의원선거

외동·감포·양남·문무대왕 |

경주시 라선거구

“**복지사회**를 위해
화끈하게 온 몸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무소속

6 손영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경주시의회의원선거 (경주시 라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6	무소속	손영식	남	1948.10.03 (만73세)	목사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졸업 (목회학박사) (1987.6.1~1988.5.21)	(전)동해고등공민학교(입실) 설립자 및 교장
							(전)충남미 선교목사 30여년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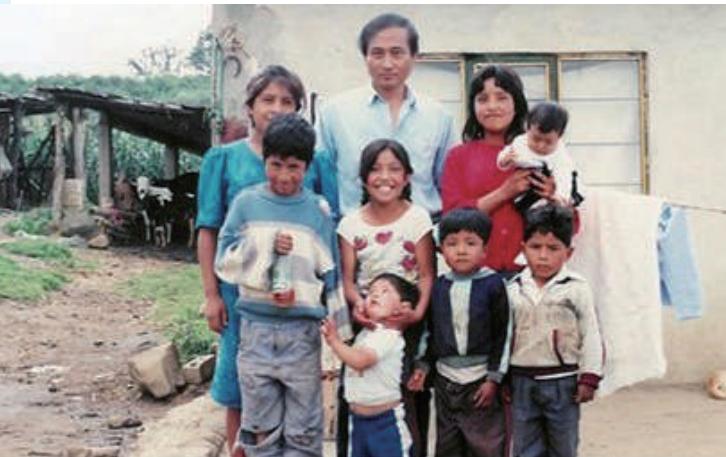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7,010	47,010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육군 상병 (만기제대)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누계	현 체납액		
계	0	0	0		
후보자	0	0	0		
배우자	0	0	0	해당없음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복지사회의 시작은 **희망**에서 나온다.”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희망을 바로 배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리고, 희망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닫힌다. 나는 선교하는 목사로서 선교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불우한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가르쳤고, 목사가 되어서는 중남미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지냈다. 그 시절 내가 배운 것이 있다. 빈민들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빈민선교란 다름 아니라 ‘빈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일’이란 것을 배웠다. 그래서 빈민들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배운 결론이 있다.

예수는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었다. 희망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고 너를 살리겠다는 정신이 없다면 희망을 논하지 말라. 자기희생 없이 복지사회를 논하지 말라.

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고향 경주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 봉사하려고 시의원에 출마한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당에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시의원의 신분이 경주시의 복지사회 실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출마를 결심했다. 당선 여부를 떠나 더 나은 복지사회를 위한 나의 봉사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부부가 힘을 합하여 봉사하겠습니다.” **1+1은 화끈한 봉사!**

손영식 이력서

- ◎ 한국 이름 : 손영식
- ◎ 미국 이름 : Sohn, Young S (이중국적)
- ◎ 출생 지역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

학력

- 미국 국제개혁대학교 졸업 문학사 (1983. 9 ~ 1984. 5)
- 미국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부 졸업 신학석사 (1984. 9 ~ 1987. 5)
- 미국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과정 졸업 목회학박사 (1987. 6 ~ 1988. 5)

경력

- (전) 동해고등공민학교(입실) 설립자 및 교장
- (전) 무궁화유치원(입실) 설립자 및 원장
- (전) 외동노인대학 학장
- (전) 중남미 선교목사(30여 년)
- (현) NGO 복지나라 대표
- (현) 경주농촌사회복지사업지원 파송선교목사 (미국 문화교회파송)

손유리 이력서

- ◎ 이름 : Sohn, Yuri (손유리)
- ◎ 국적 : 미국

학력

- 경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문학사(B.A.)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 언어학석사(M.L.)
- 미국 퍼시픽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졸업 회계학석사(MBA)
- 미국 어메리칸 인터내셔널 로스쿨 졸업반 (변호사시험 준비중)

자격증

- 캘리포니아 CPA (공인회계사)
- 미국연방 EA (세무사)
- 캘리포니아 부동산 관리국 (부동산 에이전트)

경력

- (전) 한국불어권 선교회 불어교육 강사
- (전) 캘리포니아 GIM 선교회 간사
- (현) 캘리포니아 GM 어카운팅 회사 공인회계사 (CPA) 근무중

허황된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화끈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01 | 청, 장년들에게 희망을

미국 현지에 있는 교회 및 교민단체들과 광범위하게 연결하여 어려운 농어민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미국 유학문제도 원스탑(학교물색, 수속절차, 장학금 문제, 숙식제공문제, 알바 등)으로 저희 부부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도와 줄 능력과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동, 감포, 양남, 문무대왕 지역이 미국의 작은 도시들과 각각 자매결연을 맺어 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및 중남미 이민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취업 및 사업(상품 수출 등)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위 모든 상황에 필요한(행정적, 법률적)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02 | 노인들에게도 희망을

각 지역마다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교육과 상담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4개의 읍면이 노인대학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단합하여 높은 산맥으로 인하여 동서로 갈라진 4개 읍면이 마음으로나 하나로 뭉침으로, 양남과 외동을 잇는 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의 단합을 이루겠습니다.





선교지에서 테러를 당한 후 수술대 위에서 드린 기도

사랑하는 주님!

지금 병원 수술대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대에 누운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입도 돌아가고 한쪽 팔다리는 내 마음대로 조종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 전체가 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백의의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과거 일들이 바람처럼 내 머리를 스쳐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시옵소서.

순간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일들...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 후회가
파도의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서고 싶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이렇게
지난 잘못의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지에서 순교한다는 것은 너무 큰 영광이라는 것을
부모님께서 저의 가슴속에 뿌리 깊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을 두고 주님 곁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주님의 도구일 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게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까?
만약 살려 주신다면 온전히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온전히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픔의 고통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소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아마 전신마취 주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렸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군복무 시절



육군 3사단에서 3년간 군종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군 복무중 군목(중위)과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최전방 철책 근무자들을 위해 예배를 마치고 돌아 오는 중 군용 트럭과 충돌하여 군목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저는 기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 남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고등공민학교 교장 시절



고등공민학교 교장으로 10여 년간 재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학장 시절



외동노인대학은 3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은 버스 한대로 45명씩 나누어 전국의 명성있는 고적지를 두루 탐방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술생당약방

저의 아버님의 함자가 손술생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 가셔서 어느 신약방에서 신약을 배우던 시절에, 몸에 태극기를 지니고 다니시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한국으로 추방되셨습니다.

해방 후 외동 입실에 술생당약방을 차려 40여 년 이상 운영을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때, 병들면 돈이 없어 약 한첩 사 먹을 수 없었던 그 시절, 외동 주민들과 외동과 가까운 양남, 양북의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절대빈곤시절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벗'임을 자처하며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봉사 정신을 본받고 싶어 외동 입실에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그 당시 중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중학 과정 교육을 시켰으며, 그 외에도 노인 대학 등 노인 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 대학원에서 정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후 좋은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마다하고 중남미 원주민 선교사로 자청하여 떠났습니다. 30여 년 동안 중남미 원주민이 살고 있는 절대빈곤층만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남은 여생 고향에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눈빛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릴 때에 내 사랑,
모두 당신 이름이게 하소서~ ❤

목회학 박사 손 영식 목사